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

임지영

Chapter 1. 예술에 대한 선입견 깨기

제가 갤러리를 할때에 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대체로 그림 앞에 자신감이 제로셨어요. 모두 예술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라고요.

물론 저도 예술을 공부로 인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로 서양 미술사와 동시대 예술강좌 등 미술관이나 여러 군데서 열리는 강좌들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술의 현실과 이상을 처절하게 경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로 접근할 때의 예술과 현장에서의 예술은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예술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해 속에서 그때는 저도 이렇다 할만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좋아하는 마음도 현실의 벽 앞에 너무 지쳐갔고요.

그때부터 저도 예술의 의미와 효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의 진짜 가치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감각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 초등학교때 학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 때 아이와 함께 미술관을 찾곤 했습니다.

과천 현대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 걸음을 늦추고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술은 우리의 마인드를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바꿔줍니다. 물론 예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예술을 누려야만이 교양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관계를 어떻게 유연하게 만드는지, 예술을 어떻게 제대로 누리는 건지, 향유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술이 나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데 꼭 유용한 매개이자 도구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